

현재 배추 가격은 안정세이나, 8월 중순 수급불안 우려에 대비하여 생육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비축물량 방출도 대폭 확대 지시

- 송미령 장관, 고랭지 배추 출하 동향과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 상황 점검
- 8월 중·하순 산지 비축물량을 일 최대 400톤까지 확대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협 계약재배 농가에 지원중인 약제 할인공급 물량도 확대기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8일(목)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일원(일명 안반데기)의 고랭지 배추 밭을 찾아 산지 출하동향과 추석 성수기 출하 예정인 배추 생육 상황을 점검하였다.

여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산지 출하량은 감소하였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8월 6일 기준 8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고(19.8%↓), 소매가격은 전년보다 다소 높은(4.7%↑)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다.

다만 여름배추는 고온 영향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하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재배 환경이 열악한 완전 고랭지(해발 1,000미터 내외)에서 출하되어 생산 및 유통비용이 높아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로 세심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여름 배추 밭을 세 번째 방문하여 현재 출하 중인 배추를 직접 확인하고, 추석 성수기인 8월 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배추 생육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점검 결과 작황은 대체로 양호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지난해와 유사하며, 특히 추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8월 하순 이후 수확될 배추의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가들도 이례적인 긴 장마와 고온으로 병해충 확산을 우려하여 방제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생육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일부터는 여름 배추·무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매주 생육상황, 기술지도 실적, 병해충 약제공급(농협 계통공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주는 지난 7월 26일에 이어 송미령 장관이 대면 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 결과 올해 여름배추는 추석 수요(9월 17일)에 대비하여 아주 심기(정식) 시기를 조정한 결과 8월 말부터 9월 중순에 출하될 물량은 많고, 상대적으로 8월 중순에 출하될 물량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급조절용으로 공급 중인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일 250톤 수준을 공급하고 있는데, 8월 중순에는 필요 시 일 최대 400톤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는 평년 8월 중순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의 8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물론, 일일 방출량은 산지의 출하량과 시장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비축물량 못지 않게 여름배추 작황도 중요하므로 농협경제지주 주관으로 농협 계약재배 농가에 지원 중인 약제 할인공급(30% 이상)도 조합별 할당량이 소진되면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랭지 배추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선충 피해 현황 및 방제 상황을 농촌진흥청에서 각 기관에 공유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에 적량을 과감하게 공급하고, 농업인들께서 여름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체를 재차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서기관	배민식 (044-201-2232)

